『개정판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아세아문화사, 2010)

이 현 정*

2009년 벽두에 발간된 『기록학연구』 제19호에 필자는 기록학 신간으로서 『기록관리론』의 서평을 게재했었다. 이 책의 초판은 2008년 3월에 발간되었으므로 당시 서평은 늦은 감이 있었으나, 그 개정판(2010.3)의 서평은 발행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이렇게 쓰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록학계에서 발행된 개론서의 개정판이 햇수로 6년(최정태 저 『기록학개론』) 내지 8년(김상호 저 『기록보존론』)이 지나 발행된 예로 볼 때 2년여 만에 나온 본서의 발 빠른 발행은 기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상을 최대한 반영한 입문서로서 기능하겠다는 적극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본서의 초판은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기록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개론서로서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서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기본적으로 초판의 성격과 집필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장의 순서를 일부 바꾸거나 분리 또는 통합하여 좀더 체계적인 구성을 도모하였다. 초판과 개정판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론(2008)	개정판 기록관리론(2010)
1. 기록과 사회	1. 기록과 기록관리
2. 기록과 기록관리	2. 기록관리의 역사
3. 기록의 선별과 평가	3. 기록관리학의 발전
4. 기록의 분류기술	4. 기록의 선별과 평가
5. 기록정보서비스	5. 기록의 분류와 기술
6. 전자기록관리	6. 기록정보서비스
7. 보존	7. 전자기록관리
8. 기록관리법제	8. 디지털 아카이빙
9.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학	9.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학
10. 공공기록관리 체제와 기관	10. 기록관리기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초판의 1장은 개정판의 1장에 통합되어 정리되었으며, 초판 2장에 하나의 절로서 기술되었던 '기록관리의 역사'와 '기록관리학의 발전' 부분이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장으로 분리되어 보강 서술되었다. 초판의 7장 보존부분이 개정된 기록관리법의 보존 조항을 중심으로 종이기록, 시청각기록, 행정박물에 대한 보존활동에 대한 정리 위주였다면, 개정판에서는 디지털기록의 보존에 대한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초판의 10장이 우리나라 공공기록 관리체제와 각국의 공공기록관리기관 및 대표적인 기록관리단체와 기구를 설명하였다면, 개정판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록관리기관과 다양해지고 있는 주제기록관리기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기록법의 개정 등으로 시의성은 있었으나 본서 구성의 일관성과 집필의도에 비춰볼 때, 다소 동떨어져 보

였던 초판의 8장 기록관리법제는 삭제되었다. 그 외의 각 장은 기존 초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최신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구성 및 주요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기록과 기록관리에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록의 기본 속성 및 기록의 가치와 활용성,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록관리 모델과 새로운 전자기록관리 환경 속에 주목받은 기록연속체 개념,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 등 기록관리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기술하고 있는데, 초기-근대-현대로 구분하여 국외의 기록관리 역사를 다루고,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기록관리학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학문의 핵심요소와 개념을 먼저 파악하게 하고 기록관리학의 발전과정을 유럽, 미국, 캐나다, 한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학제적 성격이 강한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소개하고 향후 기록관리학이 기록된 산물에 관한 것보다는 기록의 생산과정과 맥락에 중점을 두고 기록의 이론적 형성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수집 또는 처분하는 선별 및 평가업무에 대해 기록의 선별과 평가에 대한 개념과 대표적인 평가 선별 이론,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수집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가방법으로 여러 학자 및 보존기록관들이 제시한 평가지표를 소개하고, 평가절차의 수립 및 재평가와 그에 수반된 처분에 대해 기

술하였다.

제5장은 분류와 기술로 준현용 기록의 조직화에서는 기록의 분류체계의 역할과 구조, 개발주체, 업무분류체계와 연계된 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개념과 역할 및 국제표준 및 각국의 표준을 기술하고 있다. 보존기록의 조직화에서는 보존기록의 정리, 기술의 원칙과 특징, 보존기록 기술을 위한 표준을 국제표준과 국가기술규칙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생산맥락 기술을 위한 전거레코드 및 기능과 소장기관 기술을 위한 국제표준과 각국 및 온라인 검색도구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6장은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기록정보의 접근 및 제공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 공개 및 열람제공은 정보공개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정보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7장은 현대 기록관리의 핵심적 관심사인 전자기록관리에 대해 생산부터 장기보존까지 전자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사항과 최근의 동향을 다루고 있다.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비교, 전자기록의 관리상의 이슈, 전자기록의 품질요건과 전자기록의 관리과정(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술하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소개 및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을 InterPARES 1과 2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제8장은 디지털 기록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포괄적인

보존 및 디지털 보존의 개념, 보존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문제점, 디지털 보존기술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보존의 표준으로서 보존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및 각국의 표준안과 기록을 직접적으로 다룬 디지털 보존 사례들을 소개하고 웹 아카이빙의 정의, 특성, 유형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제9장은 기록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기록전문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기록관리직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직의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의 지침이자, 책무를 환기시키고, 일반인에게 전문직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기록관리직을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을 위해 구미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기록관리 기관들을 국내를 중심으로 공공기록관리기관과 대학기록관, 기업기록관, 병원기록관, 사회운동·문화예술·종교 등의 주제기록관으로 유형을 나눠 각각의 특성과 역할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기록관리 관련 주요한 핵심 주제영역을 입문서의 형식에 맞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신의 기록관리이론과 정책의 변화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초판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필요 수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정판을 발행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초판의 서평을 살펴봤을 때, 지적되었던 각 주제영역의 기술편차의 문제는 영역별 공동 집필에서 단독 집필체제 원칙으로의 전환과 입문서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집필의도로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현용 및 준현용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 서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예를 들어 제4장 기록의 평가 선별을 살펴보자면 평가 이론 및 수집방식에 대한 분석적 정리방식은 교육수요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구조이나, 제도화된 평가 선별 방식에 의거하자면 현용 및 준현용 기록단계에서의 평가 선별과 보존기록 단계에서의 평가 선별에 대한 실무적 파악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즉, 4.2.1 기록 생애주기기반의 수집방식 등에서 기록관 단계에서 영구기록관리기관과의 협의와 관리감독에 의해 적용되는 기록처리일정표나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과 관련된 설명만 있을 뿐, 각국에서 실제 행해지는 기록처리일정(Records Schedule)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기록처리일정에 대한 소개는 제5장 분류와 기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136~137쪽) 내용상 분류체계와의 관련성이 있지만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처분의 문제는 평가 선별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분류체계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기술되어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4.3.2의 평가지표에 나오는 호주나 캐나다의 지표들은 직접적인 행정목적과 국가의 정책방향,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역사의식 등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각국의 영구기록보존기관에서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특성이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 기능 및 업무평가만으로는 동 시대의 가치있는 영구기록의 선별이 어려우므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그 영향을 문서화 시키려는 목표(거버넌스)를 가지고

수집정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TNA의 8개의 주제 범주에 따른 수집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 실행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y)과 같은 기록의 선별수집정책도 이 장에서는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신의 기록관리이론을 소개한다는 취지의 개정판이라는 점에서 제6장 기록정보서비스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른바 인터넷 환경이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한 web 2.0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록관에서도 웹 2.0의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용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Producer+comsumer의 합성어)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행위들을 수행한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온라인 이용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와 형태,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

이러한 동향은 현재 기록정보서비스영역에서 주목되는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판에서 기록정보서비스는 매우 고전적인 영역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오히려 초판에는 실렸던 웹상에서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디지털 기록정보서비스 부분은 모두 빠지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록의 공개 및 열람 제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절인 6.5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방향은 그 서술이 우리나라를 중심에 둔 개선과 발전방향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6장의 결론으로서는 제한적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보공개제도의 소개는 매우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입문서라는 취지에 비춰본다면 웹 서비스 및

1) TNA, Provide and Enable: The National Archives' Online Strategy

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양상에 대한 분석적 정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동향 소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하여 기록관 이용자에 대한 재정의[2]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이슈사항 등도 서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판에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기록학 입문자에게는 충실한 개론서로서, 그리고 관련 연구자에게는 국내 기록학 연구성과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에서는 기록학의 학문적 과제를 첫째 영구보존대상 자료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연구둘째 아카이브즈를 보존하는 기록관에 대한 연구, 셋째 기록보존관리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기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인간 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억, 일정한 매체에 남겨진 기록과 아카이브즈 사이의 관계를 기록이 만들어진 조직체와 사회에 초점을 맞춰 해명하는 것이며, 둘째, 기록관에 대한 연구는 조직 내에서의 기록관의 위상을 비롯하여 기록관과 사회와의 관계, 기록관의 사회적 역할,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 문제를 통해 기록관 제도와 이념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가·선별부터 아카이브즈 집합 전체의 상(像)에 기초한 정리와 아카이브즈를 공개·이용가능케 하여 후세에 전승하도록 하는 것이다.[3]

돌이켜보면 『기록관리론』 초판을 접했을 때 '제1장 기록과

2) 웹2.0 환경에서 아카이브는 기존의 이용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용자들을 대하게 되고 따라서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디지털도서관(EDL)의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Europeana)의 이용자 정의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이용하고(하리라는)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Europeana Outline Functional Specification 참조

3) 丑木幸男, <アカイブズ學とは>,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編, ≪アカイブズの科學-上≫, (東京: 柏書房, 2003), pp10~11.

사회 : 사회 속에서의 기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제목과 부제로 시작하는 목차가 매우 신선하게 와 닿았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앞서 기술한 일본 기록학의 학문적 과제 첫 번째와 결부시켜 생각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계는 일본학계의 정의에 따르자면 세 번째 학문적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는 입문서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학의 학문적 과제가 고루 다루어지는 다음번 개정판을 욕심껏 기대해보고자 한다.